

욕창 예방 및 대응지침

“**욕창**”이란 우리 몸의 특정 부위(주로 뼈의 돌출부)에 **지속적 · 반복적인 압박**이 가해짐으로써 **혈액순환**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**조직이 괴사**해 발생한 **궤양**을 말한다. 압박궤양이라고도 하며, 주로 장기간 누워서 생활해온 환자, 특히 본인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환자에게서 주로 발생한다.

증상

- ① 붉은 피부 (압박에 의해 조직에 산소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피부가 벌겍게 부어오른다.)
- ② 갈라지거나 물집이 생기고, 벗겨지거나 터진 피부
- ③ 피부 표면 또는 더 깊숙이 침윤된 개방성 상처
- ④ 의복이나 침구류에 피나 고름이 묻어있음
(악취가 나는 삼출물)
- ⑤ 압박된 부위에 통증 호소(머리 뒷부분, 어깨 뒤, 팔꿈치, 엉덩이, 무릎, 발뒤꿈치 등)
- ⑥ 심할 경우 근육 또는 뼈 지지조직(건, 관절)에까지 침범,
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음

[욕창의 원인]

1. 개인적 요인(질병)

- ① 장시간 누워서 생활하는, 대·소변을 가리지 못하는, 거동이 불편한 환자 또는 노인에게서 주로 발생
- ② 수급자에게 마비가 있는 경우(뇌졸중 등)
- ③ 신장염, 심장병 등으로 인해 부종이 있을 경우
- ④ 당뇨병 등으로 인해 피부에 상처가 있을 경우
- ⑤ 영양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전신쇠약이 심할 경우(결핵, 만성질환 등)
- ⑥ 탈수가 심할 경우(피부 건조, 위장관질환 등)

- ⑦ 신체의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압박을 받을 경우(골절환자, 석고붕대 적용)
- ⑧ 노화 (나이가 들수록 피부에 혈액공급이 감소하고, 탄력성이 떨어지며, 피부 상피층이 얇아진다)
- ⑨ 개인위생을 소홀히 한 경우(지저분한 피부)

2. 환경적 요인

- ① 수급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장시간 같은 자세로 생활하는 경우
- ② 의복 또는 침구류(이불)와의 마찰
- ③ 땀이나 대·소변으로 더러워진 의복, 침구류 또는 침상에 떨어진 음식물 · 각종 부스러기 등

[욕창 예방법]

- ① 급여제공 전 영양보호사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 감염을 예방한다.
- ② 장시간 누워있는 대상자의 경우 매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준다.
- ③ 주기적인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(단, 상황에 따라 피부손상을 촉진시킬 수 있음).
- ④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한다.
- ⑤ 체위변경 또는 목욕, 기저귀 교환 시 피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.
- ⑥ 목욕으로 피부 청결을 유지한다.
- ⑦ 피부를 건조하고 부드럽게 유지시킨다. 필요한 경우 자주 로션을 발라주며, 강한 비누 또는 화장품 사용은 피한다.

- ⑧ 압력을 줄여주는 특수 쿠션, 매트리스, 침대 등을 사용한다.

- ⑨ 압박받는 부위에 배게, 패드 등을 대어 압박을 줄여준다.
- ⑩ 의복 또는 침구류는 주름이 없도록 하며, 피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한다.
- ⑪ 잠옷, 이불 등은 수시로 햇볕에 말려 건조·소독시킨다.
- ⑫ 단백질, 비타민 등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, 설탕, 꿀, 달걀흰자 등의 음식은 피한다.
- ⑬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피부탄력성 및 피부자극에 대한 저항력을 증진시킨다.
- ⑭ 기저귀 또는 더러워진 의복·침구류는 바로 갈아준다.
- ⑮ 기관은 본 지침을 기관에 비치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①⑥ 기관은 연 1회 이상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측정하고, 욕창예방 및 관리런 자료를 수급자(보호자)에게 제공해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①⑦ 욕창발생위험이 높거나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기록을 남기고 특별히 관리한다.

[욕창발생시 대처법]

1. 홍반이 있거나, 특정 부분 피부의 온도 · 조직의 단단한 정도가 타 부분과 차이가 있거나, 가려움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 1단계로 볼 수 있다.
 - ㉠ 일 1회 이상 생리식염수로 닦거나, 감염된 상처일 경우 소독하고 1% 미만의 베타딘으로 세척한다.
 - ㉡ 발적된 부위가 있으면 윤활제를 사용하여 마사지 해준다.
2. 홍반이 커지거나 피부가 벗겨지고, 딱딱해지거나 딱지 · 진물이 생긴 경우 2단계로 볼 수 있다.
 - ㉢ 병원진단을 받거나,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처치한다.
 - ㉣ 손상된 부위를 소독하고, 피부보호연고나 스프레이를 뿌린다.
 - ㉤ 항생제는 필요한 부위에 부분적으로 사용한다.

3. 피부손상이 피하지방층까지 확대된 경우를 3단계로 볼 수 있다. 작은 구멍 볼 수 있다.

- ㉠ 상처의 구멍에 탈지면을 넣고(구멍이 없을 경우 상처 위에 놓고) '옥소린액'으로 흠뻑 적신 후 10~20분이 지나면 탈지면을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.
- ㉡ '메디폼'을 상처에 붙인다. 기본 2~3일마다 한 번씩 교환하며, 안쪽에 진물이 묻어있는 경우 즉시 교환한다.
- ㉢ 증상이 심할 경우 괴사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통해 패혈증 또는 심한 합병증을 예방해야 한다.

4. 욕창이 근육은 물론 뼈까지 침범한 경우는 4단계이다. 아주 깊은 구멍에 지저분한 염증이 있다. 이 경우 욕창전문병원에서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.

욕창관리 방법

- 욕창 간호 시 청결이 요구된다. 청결 욕창 간호 시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.
- 분비물이 많아 거즈가 젖은 경우,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드레싱 부위에 덧대어 준다.
- 욕창 부위에 발열, 동통, 경화, 홍반, 열감 등 욕창부위의 감염 증상과 증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, 기관장에게 보고한다.

[전달사항]

1. 매달 **25일전까지** 일지 및 상태변화기록지 작성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노영자복지사님께서 **보내드리는 문자를 확인하신 후** 작성해 주세요.

요양사님 임의대로 작성하시면 다시 작성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.

-상태기록지는 꼭 **조치사항**이 들어가게 작성해 주세요.

-일지 작성 시 **태그 찍지 못한 사유**를 꼭!! 작성해주세요.

* 기저귀를 차거나 대.소변 실수 하는 어르신은 **급여제공기록지 하단**
배변변화에 꼭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
2. 주 1회 목욕시켜드리고, 족욕은 매일 해드리세요.
3. 매주 금요일은 냉장고 정리해주세요.
4. 의무교육 3가지 (노인학대, 노인인권, 장애인학대) 인터넷수강 시작하세요~ 이미 하신분 있으십니다.
5. 24년도 건강검진 서둘러 하시어 결과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6. 2분기 포장자 – 요양사: 양승남, 황해숙, 최미화

오늘도 교육에 참여해주셔서
감사합니다^^

수고하셨습니다.